

# 야생동물의 시청각교육은 생명

김정만/前 서울대공원 동물부장, 現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초빙교수

**지**난 1977년 케냐에서 유엔(UN)사막화(沙漠化)방지회는 19세기 초 지구는 35ha의 숲림이 덮여있었던 것이 20세기 들어 25억ha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지구상의 150만종의 동물들은 인간들의 지나친 삶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환경의 개간과 파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키 위해 이동함과 동시에 무자비한 살생을 가리지 않고 시도하는 밀렵꾼들의 횡포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동물들은 종족번식의 의무와 시청각교육을 통해 단 한 마리의 희생자도 내지 않기 위해 철두철미한 개별교육까지 시키며 자연의 일원으로 반듯하게 키워가고 있다.

그 예로 현존하는 육상동물 중 체구가 가장 큰 코끼리는 7.5~12t 체구에 하루에 물을 190l 먹고 풀은 280~320kg을 먹어야만 자기 체중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모계중심 집단사회 생활을 하는 무적의 왕자 코끼리 무리의 여왕코끼리의 행동과 명령은 시청각교육을 시키고 익히는데 한치의 허술함없이 통솔하는 교육자이다.

개별싸움에 무적의 왕으로 자처하는 수코끼리도 모계중심사회의 단합된 힘 때문에 끈기와 인내로 여왕무리에 헌신적 봉사과 위급시 생명을 초월한 대리싸움까지 서슴치 않고 실천하며 여왕의 무리를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며 철따라 영양가 있는 각종 풀들이 무성한 곳까지 안내해야만이 무리와 여왕에 눈에 들어 짝을 찾게 된다.

여왕코끼리는 임신기간 650일만에 키 95cm, 체중 113kg의 새끼를 낳는다.

태어난 새끼는 약 3년간 여왕의 각별한 보호속

에 단체생활을 익히게 된다.

예비여왕감인 암컷일 때는 수컷과는 달리 예비여왕감의 제묵으로 키우기 위해 어미는 엄격한 체통의 몸가짐과 명령을 준수토록 유도하고 끈기와 집념으로 자기의 교육을 이수시키며 예비여왕감으로 나오자가 없도록 유도한다.

각종 동물들은 수억 년을 살아오고 있지만 인간처럼 글자나 별다른 학문도 없이 시청각교육을 반복적인 실천행동으로만 살아남아서 자기들 영역권 확보와 서식지에서의 종족 번식을 어김없이 시키며 살아오고 있으며 주위진 여건의 자연환경속에서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오고 있다.

동물들은 시청각교육을 행동과 실천으로 익힌 후 단체생활 시 눈치로 머리속에 익혀두면 위급시 사람들이 상상해낼 수 없는 각종의 묘법을 발휘하여 삶을 연장한다. 종족번식, 먹이감 찾기, 생포와 살생교육 및 각종질병의 발생시에도 자기치료 방법으로 황폐한 척박한 땅 위에서도 삶에 슬기로운 지혜를 찾아내는 행동과 실천은 어미와 애비의 시청각교육에서 터득한 기상천외의 묘안들을 우리 인간들은 보고 배워야 될 것이다.

인간은 세계적으로 담합해서 21세기에는 인위적인 자연환경의 숲림을 소생시켜야 하며 항상 우리 모두 지구촌의 자멸화를 어느 누가 막을 것인가를 명심해야 한다.

말 못하는 마물 짐승들이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천부적인 행동과 소리로 대화하며 후세들에게 시청각교육으로 천년만년동안 불평불만없이 종족번식을 이어가며 살아가는 과묵한 생활들을 마음속으로 사히면서 살아가는 야생동물의 세계를 동물들한테 배우고 살아가자.